

자연주의와 ‘객관적 진실’의 묘사

– 독일 자연주의의 자연과학 수용

홍진호 (상명대)

1. 들어가는 말

브루노 마르크바르트 Bruno Markwardt는 1967년 발표된 그의 문학사에서 자연주의를 “과학에 항복함으로써 예술을 배신 Verrat an der Kunst durch Kapitulation vor der Wissenschaft”¹⁾한 문학사조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연주의의 본질이 “자연의 모방 *Naturnachahmung*”²⁾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학의 모방 *Naturwissenschaft-Nachahmung*”³⁾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보수적인 전후(戰後) 독문학계의 자연주의에 대한 반감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한편, 19세기 후반 독일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자연과학과 자연주의 문학의 밀접한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문학적 수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독일 독문학내에서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문학사에서 자연과학과 실증주의는 당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기반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그 문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 뿐 아니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오로지 소재적 측면에만 치중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본 논문은 ‘19세기 후반 열광적으로 수용되었던 자연과학의 영향을 소재의 확장에서만 찾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자연과학과 자연주의 문학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Bruno Markwardt, *Geschichte der deutschen Poetik*, Bd. V, Berlin 1967, S. 8.

2) Ebd., S. 9.

3) Ebd.

2. 자연과학 수용의 조건

2.1. 자연과학, 산업화, 진화론

1886년 열린 제 59회 “독일 자연과학자 및 의사 회의 *Versammlung Deutscher Naturforscher und Aerzte*”에서 현대적 발전기의 발명가이자 지멘스 그룹의 창립자인 베르너 지멘스 *Werner Siemens*는 19세기의 후반부를 “자연과학의 시대 *das naturwissenschaftliche Zeitalter*”⁴⁾라고 칭했다. 이 시기에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자연과학의 숨결 *durch den belebenden Odem der Naturwissenschaften*”⁵⁾에 자극 받아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당대의 낙관주의적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는 지멘스의 이러한 발언은 그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중받는 학문으로 부상한 당대 자연과학의 사회적 위상을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자연과학은 중요한 학문이었으며 그 발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19세기 중반 이후의 자연과학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연과학과 확연히 구분된다.⁶⁾

이렇게 산업화의 기반으로 응용된 자연과학은 곧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산업의 발달은 삶의 물리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파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러한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자연과학은 인류의 진보와 행복을 약속해주는 ‘마법의 주문’⁷⁾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자연과학은 단순히 그 경제적 효과를

4) *Werner Siemens, Das naturwissenschaftliche Zeitalter, Berlin 1886, S. 3.*

5) *Ebd., S. 5.*

6) 예를 들어 18세기 후반 이래 증기기관의 개선은 어렵게 얻어진 경험적 지식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1886년 발명된 현대적 발전기는 철저하게 응용과학의 산물이었다. *Vgl. Stephen F. Mason, Geschichte der Naturwissenschaft, Stuttgart 1974, S. 605.*

7) 미하엘 플뤼어샤임 *Michael Flürsheim*은 1886년 자연주의의 대표적 잡지 중 하나였던 『디 게젤샤프트 *Die Gesellschaft*』지에 실린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연과학과 그의 위대한 아들 응용기술의 주문 ‘열려라 참깨’로 무장한 인류는 승리와 환호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해갔다. *Mit dem ‘Sesam öffne dich’ der Naturwissenschaften und ihres Riesenkindes, der angewandten Technik, bewaffnet, ist die*

통해서만 주목받지는 않았다. 오로지 경험 가능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절대적인 자연법칙에 도달하는 자연과학의 귀납적 방법론은 산업화의 성공을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당대의 지식인들은 이를 철학의 방법론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사고체계를 거부하고,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적용하였다. 즉, 이들은 인간 역시 자연현상과 다를 바 없는 자연법칙의 산물, 즉 물리적 조건에 의해 법칙적으로 결정되는 존재라는 전제 하에 자연과학의 귀납적 방법론을 인간에 대한 절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프랑스 실증주의의 영향 하에 형성된 이러한 새로운 유물론적 인간관은 전통적인 종교적·목적론적 인간관과 세계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산업화와는 무관한 또 다른 자연과학의 연구결과, 즉 다윈 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에 의해 극적으로 심화되었다. 에른스트 헤켈 Ernst Haeckel (1834-1919)의 대중적 저서들에 의해 독일에서도 널리 퍼진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물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적자생존을 통한 오랜 진화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종교적 인간관과 양립할 수 없는 이러한 진화론의 결론은 당연히 보수적인 사회 지배층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오로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독일의 젊은 지식인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그들의 기본 전제, 즉 '인간 역시 자연현상의 일부이며 절대적인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제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물리적 조건과 절대적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현상의 일부로 이해되

Menschheit mit siegendem Jubelschritt vorgedrungen ins neue Weltreiche [...]" Vgl. M. Flürsheim, *Die heutige Aufgabe der Demokratie*, S. 77. In: Theo Meyer (Hrsg.), *Theorie des Naturalismus*, Stuttgart 1973, S. 77ff [Ursprünglich in: *Die Gesellschaft*, 2. Jg. (1886), Bd. 1, H. 6].

었으며, 이는 곧 인간 역시 전통적인 철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의해 연구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에 대한 요구는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생겨났으며, 문학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2.2. 자본주의화된 문학시장

자연과학을 토대로 이루어진 19세기 후반 독일의 급속한 산업화⁸⁾는 사회구조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공장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인력을 필요로 했고, 현대적인 교통체제의 발달은 도시와 산업지대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⁹⁾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많은 공업도시에서 인구의 80-90%를 차지했던¹⁰⁾ 노동자계급은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¹¹⁾, 극도로 열악한 주택 사정,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 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는 곧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로 이어졌다.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민계급 및 귀족들은 페르디난트 라살 Ferdinand Lassalle과 칼 마르크스 Karl Marx 등에 의해 주도된 노동자들의 정치화에 위협을 느꼈으며, 사회주의자들과 이들의 정치적 성장을 저지하려는 사회 기득권층 사이의 대립은 사회 불안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국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¹²⁾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사회 문제들과 계급간

8) 독일의 산업이 19세기 중반 이후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세계 경제 생산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860년 독일의 경제 생산은 세계 총 경제 생산의 4.9%로 영국(19.9%)과 프랑스(7.9%)에 많이 뒤쳐져 있었다. 그러나 1880년 독일의 경제는 세계 경제 생산의 8.5%를 차지해 이미 프랑스(7.9%)를 넘어섰고,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3년에는 14.8%로 영국(13.6%)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Vgl. Gerhard A. Ritter u. Klaus Tenfelde, *Arbeiter im Deutschen Kaiserreich 1871 bis 1914*, Bonn 1992, S. 13 f.

9)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1871년 4.8%에서 1890년에는 12.1%로 늘었고, 1910년에는 21.3%까지 치솟았다. Vgl. ebd., S. 27.

10) Vgl. ebd., S. 138 f.

11) 예를 들어 1870년대 초 섬유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70-75시간에 달했다. Vgl. ebd., S. 305 f.

의 갈등은 그러나 당대의 '주류' 문학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자본주의화의 경향 속에서 문학 시장은 주요 소비자층인 시민계급의 속물적이고 수준 낮은 예술취향에만 맞춰진 작품들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이는 곧 살롱문학, 오락문학 및 통속문학의 범람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19세기 후반의 문학적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소위 '가족잡지 Familienblätter'의 대성공이다. 최초의 '가족잡지'이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잡지는 1853년 창간된 『가르텐라우베 Gartenlaube』였다.¹³⁾ 『가르텐라우베』는 발행자의 창간호 서문에서도 잘 나타나듯¹⁴⁾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를 복잡한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즉 이들의 전략은 이상화되고 역사화된 이야기들, 즉 '일반적인 인간의 문제'라는 미명하에 현실의 맥락이 완전히 배제되어 편안하게 소비될 수 있는 문학작품들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 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수많은 사회문제 및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현실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던 당대의 시민계급들에게 전통적 이상주의에 기댄 통속문학은 매혹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가르텐라우베』는 1870년대 중반 약 40만의 발행부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로 기록¹⁵⁾된다.

그러나 이상화된 세계만을 묘사하는 통속문학이 성공을 거두면 거들수록

12) 독일 정부는 사회주의자법을 만들어 사회주의를 금지·탄압하는 한편 (법안이 발효된 첫 해인 1878년에만 약 1000여명의 사회주의자들이 추방되고 1500여명이 체포됨), 의료보험(1883), 사고보험(1884), 노후 보험(1889) 등, 여러 사회보험법의 실시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했다. Vgl. F.-W. Hennig, *Die Industrialisierung in Deutschland 1871 bis 1914*, S. 270 f.

13) 『가르텐라우베』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비슷한 성격의 잡지로는 『위버 란트 운트 메어 Über Land und Meer』, 『다하임 Daheim』 등이 있다.

14) 『가르텐라우베』의 발행인인 에른스트 카일 Ernst Keil은 창간호 서문에서 정치, 종교 등 모든 현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소개하겠다고 적고 있다. Vgl. Alfred Estermann (Hrsg.), *Die deutschen Literatur-Zeitschriften 1850-1880*, Bd. II, München u.a. 1988, S. 298 f.

15) Vgl. Hartwig Gebhardt, *Illustrierte Zeitschriften in Deutschland am Ende des 19. Jahrhunderts*, S. B43. In: *Buchhandelsgeschichte*, 1983/2, B41-B65.

젊고 진지한 작가들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급변하는 사회 상황은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을 정립할 것, 그리고 변화한 세계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소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윤만을 추구하는 문학시장은 현실과 대결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진지한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로 소시민 출신으로서 문학시장에서의 성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이들 작가들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족잡지’로 대변되는 통속문학, 이상주의의 이류문학 등은 그 예술적 저열함 때문만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과학은 사회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고자 했던 작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경험 가능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절대적인 법칙에 도달하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문학적 묘사의 대상으로 삼고자했던 작가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미학의 원형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속문학을 공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귀납적 방법론은 실재하지 않는 절대적 ‘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실을 제멋대로 왜곡하는 통속문학적 미학에 대응하기 위한 이상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자연과학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정신활동으로서 사회적 존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당대의 젊은 작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자연과학적’ 미학 이론 등을 통해 스스로를 자연과학자와 동등한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문학시장에서 통속문학의 작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자연과학적 사고체계와 ‘있는 그대로의 사실’ 및 ‘사실주의’¹⁶⁾는 흔히 ‘자연주의자’라는 총칭으로 불리는데¹⁷⁾ 19세기 후반 젊은

16) 자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문학을 흔히 “사실주의”라고 불렀다.

17) 자연주의자들은 19세기말의 정신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독일의 전통적 이상주의, 통속 문학 등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었고, 문학단체 등을 통해 인간적으로도 서로 얽혀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통일된 문학 컨셉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문학적 흐름을 주도할 만한 대형 작가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주의 시기 독일 문학은 결국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처럼 통일된 문학 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 최근의 문학사 서술에서 ‘자연주의’

작가들의 최대 화두가 되었으며,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통속문학과 시민계급의 이상주의적 미적 취향을 맹공격하였다. 19세기 후반 자연과학의 문학적 수용은 극적으로 변화된 세계관과 인간관의 변화를 문학적으로 소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결과였던 동시에, 통속문학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당대의 문학시장이 초래한 결과였던 것이다.¹⁸⁾

3. 자연과학의 문학적 수용

3.1. 추한 '진실'

자연주의자들이 주창한 '객관적 진실'은 우선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당대 문학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통속문학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일종의 구호였다. 자연주의자들은 통속화된 미적 가치를 위하여 사실성을 희생시키는 현실 미화와 이상화의 경향을 “터무니 없는 거짓말 *hirnverbrannte Lüge*”¹⁹⁾로 비난하면서, '객관적 진실'의 묘사를 막연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모두들 '객관적 진실'을 외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문학작품 역시 다양한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호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자연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경향은 존재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그동안 정당한 예술적 묘사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의 개념은 19세기말 새로운 정신사적 조류 속에서 전통적인 문학형식을 거부한 다양한 문학경향들을 일컫는 총칭으로 사용된다.

18)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학의 수용 역시 통일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주의자들은 통속문학을 비판하고 '사실주의' 문학을 주창하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비슷했지만, 구체적인 자연과학의 수용 방법이나 '객관적인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볼 자연과학 수용의 양상들도 당대의 문학적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자연주의 내부의 다양한 문학적 경향들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연주의 문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오히려 바로 이러한 내적 다양성에 있기 때문이다.

19) Leo Berg, *Der Naturalismus. Zur Psychologie der modernen Kunst*, S. 199.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190-199 [Ursprünglich München 1892].

못했던 추하고 비윤리적인 소재에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찾으려는 경향이 었다.

자연과학적 세계관의 영향 하에 있던 당대의 젊은 작가들은 모든 형이상학적 사고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미학 체계를 거부했다. 이들은 전통적 미학의 핵심이 ‘절대적 미’의 개념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동안 예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던 이 ‘절대적 미’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통속문학에서 이루어지던 현실 미화의 미학적 토대를 파괴하고자했던 것이다. 이제 이들은 “그 자체로서 추한 것, 더러운 것, 천박한 것, 비예술적인 것 *an sich Häßliches, Schmutziges, Gemeines, Unkünstlerisches*”²⁰⁾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연 속의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예술적 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술 작품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소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묘사하는가 아니면 “환상적인 것, 반자연적인 것, 현실적 연관이 빠져있는 것 *das Phantastische, Naturwidrige, der realen Beziehung Entbehrende*”²¹⁾, 즉 ‘거짓’을 묘사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 었다. 이에 따라 알콜중독, 질병, 가난, 매춘, 도덕적 문란 등 전통적으로 금기 시되던 소재들이 예술작품의 정당한 소재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소재들은 에밀 졸라의 영향 하에 빠르게 자연주의의 핵심 테마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소재 선택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던 평론가 중 한 사람이었던 칼 프렌첼 *Karl Frenzel*의 글이 잘 증언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의 안경을 쓰고 자연을 바라보려하지 않는다. 인간과 사물을 아름답게 조명하여 그것을 세속적인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술로부터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것

20) Conrad Alberti, *Die zwölf Artikel des Realismus. Ein litterarisches Glaubensbekenntnis*, S. 54.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49-56 [Ursprünglich in: *Die Gesellschaft*, 5. Jg. (1889), Bd. 1, Januar-Heft, S. 2-11].

21) Ebd.

가를 치르코라도 진실만을 가지고자하며,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미보다는 추를 더 선호한다.

Man will die Natur nicht mehr durch die klassische oder die romantische Brille ansehen, man bestreitet der Kunst das Recht, Menschen und Dinge in eine verschönernde Beleuchtung zu stellen und sie über das gemeine Durchschnittsmaß zu erhöhen, man verlangt Wahrheit um jeden Preis und gibt bei der Auswahl der darzustellenden Gegenstände bald bewußt, bald unwillkürlich der Häßlichkeit den Vorzug vor der Schönheit.²²⁾

1891년에 쓰여진 프렌첼의 이 에세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연주의자들은 이제 기존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던 소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로지 추한 것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자연주의자들의 세계관에도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주장은 추한 것 역시 진실의 일부라는 것이지, 진실은 오로지 추한 것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자연주의 작가들이 추한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²³⁾ 왜냐하면 사실 미화로 대변되는 통속 문학과와의 경쟁에서 ‘아름다운 것’은 곧 ‘거짓’의 상징이었으며, 반대로 ‘추한 것’은 ‘진실’의 상징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한 진실’의 범람은 곧 자연주의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프렌첼은

22) Karl Frenzel, *Der moderne Realismus*, S. 380f.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380-390 [Ursprünglich in: *Vom Fels zum Meer*, 1891/92, Bd. 1, Januar-Heft, S. 156-161].

23) 율리우스 하르트 Julius Hart는 1890년에 발표된 한 에세이에서 통속문학과 낡은 이상주의 문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추한 것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이고 테러와도 같은 radikal-terroristisch”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과거의 가치를 파괴하기만 해서는 자연주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 역시 언급하고 있다. Vgl. Julius Hart, *Der Kampf um die Form in der zeitgenössischen Dichtung. Ein Beitrag zugleich zum Verständniß des modernen Realismus*, S. 138.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132-139 [Ursprünglich in: *Kritisches Jahrbuch. Beiträge zur Charakteristik der zeitgenössischen Literatur sowie zur Verständigung über den modernen Realismus*, 1. Jg., 1890, Heft 2, S. 38-77]

앞서 인용한 에세이에서 자연주의자들이 “천한 것, 궁색한 것, 그리고 병든 것들을 관찰하는 데에 in der Beobachtung des Niedrigen, Dürftigen und Krankhaften”²⁴⁾ 몰두하고 있으며 그들이 알고 있는 ‘자연’이란 오로지 “현실의 더러운 한 구석 ein schmutziger Winkel der Wirklichkeit”²⁵⁾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동시대의 작가였던 레오폴트 폰 자허-마조흐 Leopold von Sacher-Masoch는 자연주의자들이 “줄거리의 진행을 위해서도 성격과 특징을 묘사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혐오스러운 사람이나 장면, 디테일들 Ekel erregende Menschen, Scenen, Einzelheiten, die weder zur Führung der Handlung, noch zur Charakteristik irgend etwas beitragen”²⁶⁾을 묘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주의가 오로지 더러운 것의 묘사만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비난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자연주의자들이 무의식중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거짓이며, 오로지 추한 것만이 진실 Alles was schön ist, ist unwahr, wahr ist nur das Häßliche”²⁷⁾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재 선택에 대한 비판은 자연주의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최초의 자연주의 잡지로 꼽히는 『디 크리티셰 바펜겐게 Die kritische Waffengänge』의 발행인 중 한명이었던 율리우스 하르트 Julius Hart는 독일의 ‘졸라 추종자들 Zolaisten’이 발표하는 소설들에 대해 비평하면서, 만약 오로지 추한 것들만을 묘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배제한다면, 이는 사실을 아름답게만 왜곡하는 통속문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24) Ebd., S. 388.

25) Ebd.

26) Leopold von Sacher-Masoch: *Die naturalistische Epidemie. Nach persönlichen Eindrücken*, S. 375.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380-390 [Ursprünglich in: *Die Gegenwart. Wochenschrift für Literatur und öffentliches Leben*, 1889, 35. Bd., Nr. 25, S. 390-393].

27) Ebd., S. 377.

28) Vgl. Julius Hart, *Der Zolaismus in Deutschland*, S. 676f.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672-678 [Ursprünglich in: *Die Gegenwart. Wochenschrift für Literatur und öffentliches Leben*, 1886, 30. Bd., Nr. 40, S. 214-216].

3.2. 진정한 '진실'로서의 '법칙'

이처럼 자연주의 문학의 '추한' 소재는 자연주의 진영 내부에서 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재 선택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자연과학을 수용하고자 했던 작가 중 하나였던 콘라트 알베르티 Conrad Alberti는 '진실', 즉 “거역할 수 없는 자연법칙의 비밀스럽고도 강력한 작용 *geheimnisvolle, mächtige Walten der ehernen Naturgesetze*”²⁹⁾은 지배자나 영웅들의 삶보다는 궁핍하고, 거칠고, 또 추하기까지 한 서민들의 삶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은 사회적 통념이나 체면 때문에 왜곡되지 않은 서민들의 삶에서 “보다 원형에 가깝고 단순하며 자연적으로 *elementarer, schlichter, natürlicher*”³⁰⁾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견 추해보이는 사회 하층민들의 삶 역시 예술적 소재로 손색이 없으며, 예술이 거저 없는 '진실'을 묘사해야한다고 할 때 이들의 삶은 영웅적 인물이나 고귀한 인물들보다 오히려 더욱 적합한 예술적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주의 경향의 비평가였던 한스 메리안 Hans Merian 역시 1891년 발표된 에세이 『주인공으로서의 건달. 현대 미학을 위한 기고 *Lumpen als Helden. Ein Beitrag zur modernen Ästhetik*」³¹⁾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추한 것과 타락한 것 *das Häßliche und Verkommene*”³²⁾, 즉 사회

29) Conrad Alberti: *Die zwölf Artikel des Realismus. Ein litterarisches Glaubensbekenntnis*, S. 53.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49-56 [Ursprünglich in: *Die Gesellschaft*, 1889, Bd. 1, Januar-Heft, S. 2-11].

30) Ebd.

31) 자연주의 작가인 콘라트 알베르티, 빌헬름 발로트 Wilhelm Walloth, 헤르만 콘라디 Hermann Conradi, 그리고 자연주의 작품들을 주로 출판했던 출판사 '빌헬름 프리드리히 Wilhelm Friedrich'의 운영자였던 빌헬름 프리드리히는 1890년 불온서적 출판 혐의로 검찰의 고발을 받는다. “사실주의자 재판 *Realistenprozeß*”이라고 불렸던 이 재판에서 발로트는 벌금 150 마르크를, 알베르티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300 마르크를 선고받았으며, 프리드리히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콘라디는 판결이 내려질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선고를 받지 않았다.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스 메리안의 에세이는 이 사건에 대한 비평으로 쓰여졌다.

의 “‘병적인 현상’을 문학의 중심으로 eine 'Krankheitserscheinung' zum Mittelpunkt einer Dichtung”³³⁾ 삼는 것이 미학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자문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미적 체험은 우리가 “예술 작품 속에 재현된 세계 전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인식 Erkennen der im Kunstwerk nachgebildeten logischen Kausalität des Weltganzen”³⁴⁾하는 순간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인과법칙의 작용 dieses Walten der Kausalgesetze”³⁵⁾, 즉 “우리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세계의 질서 [der] von uns an und für sich als höchste Schönheit empfundene[n] Weltordnung”³⁶⁾는 다름 아닌 험오스럽고 추한 사회현상들에서 가장 잘 나타나며, 따라서 이들 ‘추한’ 소재들은 기피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미학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소재들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알베르티와 메리안은 여전히 ‘추한 것들’을 통해 ‘진실’을 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사회의 그늘진 곳,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묘사했던 초기 자연주의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예에서 우리는 ‘진실’의 개념이 새로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자연주의자들이 ‘미화되지 않은 진실의 묘사’를 주창하며 ‘추한 것’을 주요 소재로 삼았을 때, 이들이 말하는 ‘진실’은 ‘경험적으로 인식되는 사실들’ 그 자체를 의미했다. 미학적 원칙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경험한 그대로의 사실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이들의 ‘사실주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알베르티와 메리안은 이러한 ‘경험적 사실’에서 ‘진실’을 찾지 않았다. 이들은 ‘진실’을 “거역할 수 없는 자연법칙의 비밀스럽고도 강력한 작용”,

32) Hans Merian; *Lumpen als Helden. Ein Beitrag zur modernen Ästhetik*, S. 169.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169 [Ursprünglich in: *Die Gesellschaft*, 7. Jg. (1889), Bd. 1, Januar-Heft, S. 64-79].

33) Ebd.

34) Ebd.

35) Ebd.

36) Ebd.

“세계전체의 인과관계” 등 눈에 보이는 사회 현상 이면에 놓여있는 절대적 자연법칙으로 이해했으며, 이들이 ‘추한 것’을 문학적 소재로 정당화한 것 역시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추한 것들’이 자연법칙의 실현과정 및 그 결과를 다른 소재들보다 더욱 잘 드러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진실의 개념은, 그들이 여전히 ‘추한 것’을 통한 ‘진실’의 묘사를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주의’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했다. ‘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을 의미한다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글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진실’이 묘사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진실’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현상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 인과관계, 즉 자연법칙을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학적 양식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한 가능성은 우선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테마화하는 데에서 생겨났다. 즉 많은 자연주의 작가들이 자연과학의 연구결과들을 직접 소재로 다룸으로써 새로운 ‘진실’을 문학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19세기 중반 이후 새로 발견되고 당시 유행하던 대중과학 서적에 의해 널리 퍼진 자연법칙들은 대부분 인간 및 사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다윈의 진화론만이 비교적 쉽게 인간과 사회에 확대 적용될 수 있었을 뿐,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법칙’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지식에 의해 직접 도출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연주의자들은 기껏해야 실증주의 및 실증주의적 사회학의 영향 하에 자연과학의 기본 전제들, 즉 유물론, 모든 (사회)현상들의 법칙성 등을 인간과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문학적 소재로 사용된 자연과학적 지식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테마화된 ‘자연법칙’들 역시 결정론 및 환경결정론, 진화론, 생존경쟁, 유전법칙 등이 거의 전부였다.³⁷⁾

37) 빌헬름 뵐세 Wilhelm Bölsche는 1887년 발표된 『문학의 자연과학적 기초 Die naturwissenschaftliche Grundlage der Poesie』라는 책에서 인간에 대한 자연과학의 연구결과를 문학인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책이 전무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는 자연현상 뿐만 아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의 수용은 자연주의 문학에서 소재의 차원을 뛰어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인간이 오로지 물리적·생물학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이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법칙에 따라 행동의 양식이 결정되는 존재라면, 인간은 결국 동일한 조건에서는 언제나 똑 같은 행동을 하는 “인간 기계 *menschliche Maschine*”³⁸⁾로 전락하고 만다. 이는 동일한 사회집단에 속하여 동일한 사회·물리적 조건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동 양식과 삶의 형태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한 개인을 타인들과 구별시켜주는 특별한 개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연과학적 사고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유물론적·결정론적 인간관의 미학적 함의는 분명하다. 그동안 문학작품 속에 주인공으로 묘사되어왔던 인물들, 즉 강한 의지나 독특한 개성, 혹은 특별한 운명에 의해 평범한 인간들과 구분되었던 전통적 의미의 영웅들은 이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작중 인물은 특별한 성격과 운명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인물로 대체 가능한 수많은 유사한 인간들 중 하나로 나타나며, 동시에 동일한 사회·물리적 조건 하에서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나타나게 된다. 더 이상 전통적인 미적 틀에 들어맞지 않는 등장인물의 이와 같은 성격은 ‘진실’의 새로운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과학의 문학적 수용이 소재 차원을 넘어 미학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연법칙, 혹은 ‘모든 자연현상은 자연법칙의 결과’라는 법칙성의 전제가 문학적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묘사의 원칙이 될 때 보다 분명하게

나라, 인간과 사회의 현상들까지도 설명해줄 수 있는 자연법칙들이 이미 발견되었으나, 그것이 전문적인 언어로 쓰여져있기 때문에 아직 작가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Vgl. Wilhelm Bölsche: *Die naturwissenschaftlichen Grundlagen der Poesie. Prolegomena einer realistischen Ästhetik*, Tübingen 1976 [ursprünglich 1887], S.9.

38) Émile Zola: *Der Experimentalroman. Eine Studie*, S. 91. In: Manfred Brauneck/Christine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87-97.

나타난다. 자연주의자들은 실증주의의 영향 하에 모든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들은 감각적·경험적으로 인식되는 세계의 현실은 자연법칙의 결과물로서 '진실'의 본질이 아니라 '진실'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진정한 '진실'은 이제 - 알베르 터와 메리안의 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 절대적인 법칙, 다시 말해 경험적으로 인식되는 구체적 현상들 사이의 추상적 인과관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실'은 경험을 통해 직접 인식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연주의자들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필요로 했으며, 이들은 자연과학의 귀납적 연구방법에서 그 이상적인 모델을 찾았다. 이 자연과학적인 '진실' 인식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특정한 사회현상군(群)을 결정짓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 1)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군의 개별 현상들을 관찰한다. 2) 관찰자의 주관적인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관찰된 개별 현상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 인과관계를 찾아낸다. 3) '한 사회현상군 내의 모든 개별 현상들은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따라서 각각의 개별 현상들은 그것이 속한 전체 사회현상군을 대표한다'는 귀납법적 전제 하에 이렇게 발견된 개별 현상들의 인과관계를 전체 사회현상군에 적용되는 '법칙'으로 일반화한다.³⁹⁾ 이와 같은 자연과학적·귀납법적 사고체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경험적 현실이란 결

39) 이러한 자연과학적·귀납법적 사고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아르노 홀츠 Arno Holz의 예술 법칙이다. 홀츠는 1891년 발표된 에세이 「예술 — 그 본질과 법칙들 Die Kunst — Ihr Wesen und ihre Gesetze」에서 극단적인 귀납적 방법에 의하여 예술의 법칙을 찾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는 우선 개별적인 예술 현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예술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때 가장 단순한 예술 형태, 즉 어린아이가 흑판에 그린 그림을 분석함으로써 예술 전체의 법칙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이라는 현상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면, 예술에 속하는 모든 개별 현상들 역시 그 법칙에 지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하에 그는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현실(자연)의 형태를 모방하고자 하며, 그것이 바로 예술의 기본 법칙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는 이 단 하나의 사실로부터 추론된 '법칙'을 곧장 예술전체의 법칙으로 일반화하여 "예술 = 자연 - x Kunst = Natur - x"라는 공식을 만들어낸다. Vgl. Arno Holz: *Die Kunst — Ihr Wesen und ihre Gesetze*. In: Arno Holz: *Arno Holz Werke*, Bd. V, Neuwied am Rhein u. Berlin-Spandau 1962, S. 1-16.

국 추상적인 ‘법칙’이 – 부수적인 조건들에 의해 그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칙’ 및 ‘진실’은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의 원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연과학적 ‘진실’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사실주의’의 컨셉은 이와 같은 새로운 ‘진실’ 인식의 방법론에서 시작된다. 자연과학적 사고체계를 바탕으로 할 때 현실을 문학적·예술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작중 세계를 실제 세계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의 실현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정한 사실주의’는 당연히 경험적 사실의 문학적 묘사에만 치중하는 기존의 자연주의적 사실묘사 방법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단지 ‘진실’의 껍데기만을 묘사할 수 있을 뿐, 묘사된 세계를 ‘사실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본질적 ‘진실’은 드러내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단순히 문학적 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진실’은 묘사될 수 없었다. 작중 세계의 이면에 있는 인과관계가 총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개별 자연법칙들은 ‘진실’과 무관한 단순 소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자연주의자들은 현실을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문학 작품 속으로 옮겨놓고자 하였으며, 이는 곧 ‘자연법칙’을 작중 세계의 기본 구성 원리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이들은 묘사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의 이면에 있는 추상적 인과관계를 현실의 기본 틀로 상정하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개성적인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세계를 자연 상태에서와 똑같은 구조로 재현해내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자연과학적 ‘진실’을 묘사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물의 성격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는가’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한 현실의 외형이 얼마나 사실에 가깝게 묘사되었는가’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작중 세계가 일반적 법칙의 구체적 실현으로 묘사되었는가’하는 문제였으며, 오로지 이 기준에 의해서만 문학작품의 ‘사실성’과 미학적 가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콘라트 알베르티는 ‘사실주의적’ 예술이란 “더 높은 진실의 구체적 묘사 die plastische Darstellung der [...] höherer Wahrheit⁴⁰⁾”, 즉 추상적인 자연법

40) C. Alberti, *Natur und Kunst. Beiträge zur Untersuchung ihres gegenseitigen*

칙을 구체화하여 경험적 현실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칙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개별 현상들 von ihrem Gesetz losgelöste einzelne Wirklichkeitserscheinung”⁴¹⁾은 아무리 그 외형이 현실과 닮아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술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칼 블라이프트로이 Karl Bleibtreu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예술이란 ‘일반적인 자연법칙의 상징’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예술은 “사소한 외형적 사실들 [die] kleinen und kleinlichen Äußerlichkeiten”⁴²⁾이 아니라 “사실보다 더 중요한 wichtiger als Tatsachen”⁴³⁾ 사실 이면의 일반적 법칙들을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⁴⁾

이와 같은 ‘사실주의’의 컨셉이 어떠한 미학적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1889년 발표된 하인리히 하르트의 에세이 「사실주의 운동. 그 근원, 본질, 목표 Die realistische Bewegung. Ihr Ursprung, ihr Wesen, ihr Ziel」가 잘 보여주고 있다.

Verhältnisses, S. 160. In: Theo Meyer (Hrsg.), *Theorie des Naturalismus*, S. 152-166.

41) Ebd.

42) Karl Bleibtreu, *Realismus und Naturwissenschaft*, S. 121. In: Theo Meyer (Hrsg.), *Theorie des Naturalismus*, S. 121f [Ursprünglich in: *Literarisch-kritische Rundschau*, 1888, H.1, S. 3-5].

43) In: Theo Meyer (Hrsg.), *Theorie des Naturalismus*, S. 121f [Ursprünglich in: *Literarisch-kritische Rundschau*, 1888, H.1, S. 3-5].

44) 이와 같이 자연과학적 사고체계 내에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현상들의 관찰로부터 출발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에 이르는 귀납적 현실인식의 방법론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진실’, 즉 자연법칙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칙을 다시 개별 현상의 형태로 구체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인리히 하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예술을 학문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것은, 바로 예술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예술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총체성과 충만함 그리고 생생함을 가진 형태를 만들어낸다. Das ist es, was die Kunst von der Wissenschaft unterscheidet, daß sie nicht nur erkennt, sondern daß sie auch gestaltet, wie die Natur selber, in der Ganzheit, Fülle und Lebendigkeit der Natur selbst.” Heinrich Hart, *Die realistische Bewegung. Ihr Ursprung, ihr Wesen, ihr Ziel*, S. 121. In: M. Brauneck u. C. Müller (Hrsg.), *Naturalismus.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 118-128 [Ursprünglich in: *Kritisches Jahrbuch*, 1. Jg. (1889), Heft 1]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문학 역시 혼란스럽고 뿌리 없는 사변으로부터 벗어나 학문으로 성장해야 한다. 구체적 형상들로 표현되는 심리학으로, 살아 숨쉬는 영상들로 표출되는 포괄적 세계관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대상, 즉 자연과 인간은 이미 주어져있다. 학문은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을 연구하고, 문학은 이들을 전형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로, 또 모든 현상들을 아우르는 구체적 형태로, 그리고 우연적인 외형이 아니라 이들의 본질과 그 형이상학적인 핵심에 따라 새롭게 창조하여 보여준다. 자연과학이 법칙을 만들어낸다면, 문학은 전형적인 인물들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과정은 그러나 문학이 객관적으로 작업할 때, 작가가 자연처럼 창조할 때에만 완수될 수 있다.

Auch sie [die Literatur] muß, bildlich gesprochen, aus wirrer, wurzelloser Spekulation zur Wissenschaft emporwachsen, zu einer Psychologie in Gestalten, zu einer allumfassenden Weltansicht in lebenathmenden Bildern. Das Objekt, Natur und Menschheit, ist gegeben. Die Wissenschaft erforscht die Gesetze, welche Natur und Menschheit beherrschen, die Dichtung giebt eine Neuschöpfung beider in typischen Charakteren, in Verkörperung aller Erscheinungen, ihrem Wesen, ihrem ideellen Kerne, nicht ihren zufälligen Aeußerlichkeiten nach. Gesetze dort, hier Typen. Diese Aufgabe erfüllen kann jedoch die Poesie nur, wenn sie objektiv verfährt, wenn der Dichter schafft, wie die Natur selbst.⁴⁵⁾

작중 세계를 일반적 자연법칙의 실현 결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처럼 전형적인 것, 일반적인 것의 묘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문학 작품 속에 묘사되는 인물들은 더 이상 독특한 개성이나 특수한 운명을 가질 수 없게 되며, 사회적 관점에서든 아니면 생물학이나 인류학적 관점에서든 전형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게 된다.⁴⁶⁾ 그리고 그 결과 인물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집단, 혹은 인류 전체를 대변하는

45) Ebd., S. 124.

46) 이러한 맥락에서 빌헬름 빌세는 이와 같이 전형적인 인물을 창조하는 것, 즉 “자연사적으로 실제처럼 naturgeschichtlich echt” 보이면서도 “전형적인 것, 일반적인 것으로 zum Typischen, zum Allgemeinen” 승화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해 내는 것이야말로 작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W. Bölsche, *Die naturwissenschaftlichen Grundlagen der Poesie*, S. 11.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예는 빌헬름 폰 폴렌츠 Wilhelm von Polenz의 단편소설 『시험 Die Versuchung』(1893)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폴렌츠는 이 작품에서 인간을 성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생물학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의지로 가득 차 본능적 욕망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주인공 바이커르트 Weikert를 비롯하여 모든 작중인물들의 행동과 운명을 성욕의 결과로 묘사한다. 폴렌츠는 ‘인간은 성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절대적 ‘법칙’을 기반으로 작중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각각 상이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 인물들은 폴렌츠의 인간관 안에서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⁴⁷⁾

그러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묘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작중 인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작중 세계의 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실제로 많은 자연주의 작가들이 전형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또 에밀 졸라의 모범을 따라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묘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법칙’, 즉 사회의 기본 구조만을 단순화된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콘라트 알베르티는 총 4부작으로 기획된 연작소설 『생존 경쟁 Kampf ums Dasein』의 첫 작품인 『누가 더 강한 자인가? Wer ist der Stärkere?』(1888)에서 이러한 자연과학적 ‘사실주의’ 개념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자본가, 시민, 노동자, 사회의 하층민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운명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각각 ‘전형적’인 예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때 알베르티는 자연과학자인 한 등장인물을 통해 각 인물들의 운명과 작품 속에 묘사된 사회적 현상들이 모두 다윈주의적인 생존경쟁과 ‘관성의 법칙’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알베르티는 인간의 운명과 사회적 현실을 결정짓는 자연법칙이

47) 이처럼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인물을 묘사하고자 하는 경향과 함께 앞서 언급했던 세기전환기의 문학적 경향, 즉 전통적 의미의 영웅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인물들이 문학적 묘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경향이 보다 분명해진다.

진화론과 관성의 법칙에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추상적 ‘진실’의 구체화된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형적인 인물을 통하여 한 사회집단을 묘사한다든가, 기본구조로 단순화된 작중세계를 통하여 사회전체를 묘사하는 ‘사실주의’ 컨셉은 작중인물과 작중세계의 사실성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이러한 미학적 원칙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의 본질이 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폴렌츠나 알베르티의 예에서 보듯 자연주의자들이 내세운 ‘법칙들’은 자연법칙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증명될 수 없는 ‘유사법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주의’의 원칙이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했으며 문학적으로 성공적인 작품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를 그 기본 ‘법칙’으로 환원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현실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자연주의와 세기전환기를 넘어서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이는 아르투어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의 경우처럼 심리학적 성찰과 결합하거나 에두아르트 폰 카이질링 Eduard von Keyserling의 경우처럼 생물학적 인간관 및 문명비판론적 시각과 결합하여 매력적이고도 문학적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탄생하는 미학적 토대가 되었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의 절박한 정신사적·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자연과학의 문학적 수용은 자연주의 연구에서 흔히 주장되어왔던 것처럼 소재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유물론적 세계관과 귀납적 방법론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자연과학은 자연주의자들에게 ‘진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도록 해주었으며, 이는 다시 ‘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문학적 방법론, 새로운 ‘사실주의’ 컨셉에 대한 탐구로 이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문학적 경향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했으며 수준 높은 비학적 논의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다 커다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연주의자들의 노력이 과학, 철학, 미학, 문학 등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세계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마지막 시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⁴⁸⁾ 물론 이러한 시도 자체는 총체적 세계관이 가능했던 근대 및 근대 이전의 인문학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게도 자연주의가 현대성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총체적 세계관을 구축하고자하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더 이상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없게 되어 버린 현대의 속성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자들에 의한 자연과학의 수용은 비록 문학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이들의 실패는 세기전환기 독일 문학이 문학적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8) 물론 이후에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성의 법칙'을 사회의 기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문학적 묘사의 기초로 삼을 만큼 자연과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문학적 시도는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모함은 아직 현대적 자연과학과 세계관, 현대적 자연과학과 문학적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가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Bölsche, Wilhelm: Die naturwissenschaftlichen Grundlagen der Poesie. Prolegomena einer realistischen Ästhetik. Leipzig 1897.
- Bölsche, Wilhelm: Sozialismus und Darwinismus. In: Der sozialistische Akademiker II (1896) Nr. 5. 267 ff.
- Brauneck, Manfred: Literatur und Öffentlichkeit im ausgehenden 19. Jahrhundert. Studien zur Rezeption des naturalistischen Theaters in Deutschland. Stuttgart 1974.
- Brauneck, Manfred u. Müller, Christine (Hrsg.): Naturalismus. Manifest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80-1900. Stuttgart 1987.
- Butzer, Günter u. Günther, Manuela: Literaturzeitschriften der Jahrhundertwende. In: York-Gothart Mix (Hrsg.): Naturalismus. Fin de siècle. Expressionismus 1890-1918. München u. Wien 2000. S. 116-135.
- Cowen, Roy C.: Der Naturalismus. Kommentar zu einer Epoche. München 1973.
- Cowen, Roy C.: Der Naturalismus. In: Hans Joachim Piechotta (Hrsg.): Die literarische Moderne in Europa. Bd. I. Opladen 1994.
- Erich, Born Karl: Der soziale und wirtschaftliche Strukturwandel Deutschlands am Ende des 19. Jahrhunderts. In: Moderne deutsche Sozialgeschichte. Herausgegeben von Hans-Ulrich Wehler, Köln 1973.
- Fähnders, Walter: Avantgarde und Moderne 1890-1933. Stuttgart 1998.
- Hamacher, Wolfram: Wissenschaft, Literatur und Sinnfindung im 19. Jahrhundert. Studien zu Wilhelm Bölsche. Würzburg 1993.
- Hamann, Richard u. Hermand, Jost: Naturalismus. München 1972.
- Helmes, Günther: Der 'soziale Roman' des Naturalismus – Conrad Alberti und John Henry Mackay. In: York-Gothart Mix (Hrsg.): Naturalismus. Fin de siècle. Expressionismus 1890-1918. München u. Wien 2000. S. 104-115.

- Hermand, Jost: Der Schein des schönen Lebens. Studien zur Jahrhundertwende. Frankfurt a.M. 1972.
- Hoefert, Sigfrid: Zum Stand der Naturalismusforschung. In: Akten des V.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 Cambridge 1975. In: Jahrbuch für Internationale Germanistik, Reihe A. Bd. 2,4. Frankfurt/M 1976. 300f.
- Kaiser, Dagmar: Entwicklung ist das Zauberwort. Darwinistische Naturverständnis im Werk Julius Harts als Baustein eines neuen Naturalismus-Paradigmas. Mainz 1995.
- Kolkenbrock-Netz, Jutta: Fabrikation – Experiment – Schöpfung. Strategien ästhetischer Legitimation im Naturalismus. 1981.
- Koopmann, Helmut: Die Klassizität der Moderne. Bemerkungen zur naturalistischen Literaturtheorie in Deutschland. In: Beiträge zur Theorie der Künste im 19. Jahrhundert. Bd. 2. Hrsg. Von H. Koopmann und J. Adolf Schmoll gen. Eisenwerth. Frankfurt/M 1972. 132ff.
- Koopmann, Helmut: Deutsche Literaturtheorien zwischen 1880 und 1920. Darmstadt 1997.
- Mahal, Günther: Naturalismus. München 1975.
- Markwardt, Bruno: Geschichte der deutschen Poetik. Bd. V. Berlin 1967.
- Mason, Stephen F.: Geschichte der Naturwissenschaft in der Entwicklung ihrer Denkweisen. Stuttgart 1991.
- Meyer, Theo: Theorie des Naturalismus. Stuttgart 1973.
- Meyer, Theo: Naturalistische Literaturtheorien. In: York-Gothart Mix (Hrsg.): Naturalismus. Fin de siècle. Expressionismus 1890-1918. München u. Wien 2000. S. 28-43.
- Möbius, Hanno: Der Positivismus in der Literatur des Naturalismus. München 1980.
- Riedel, Wolfgang: Homo Natura. Literarische Anthropologie um 1900. Berlin u.a. 1996.
- Riha, Karl: Naturalismus und Antinaturalismus. In: Annalen der deutschen Literatur. Stuttgart 1971. 719ff.
- Ruprecht, Erich (Hrsg.): Literarische Manifeste des Naturalismus. Stuttgart 1962.

- Schmidt, Günther: Die literarische Rezeption des Darwinismus. Das Problem der Vererbung bei Emile Zola und im Drama des deutschen Naturalismus. Berlin/DDR 1974.
- Siemens, Werner: Das naturwissenschaftliche Zeitalter. Berlin 1886.
- Sprengel, Peter: Darwin in der Poesie. Spuren der Evolutionslehre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des 19. und 20. Jahrhunderts. Würzburg 1998.
- Sprengel, Peter: Geschichte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1870-1900. München 1998.
- Thomé, Horst: Modernität und Bewußtseinswandel in der Zeit des Naturalismus und des Fin de siècle. In: York-Gothart Mix (Hrsg.): Naturalismus. Fin de siècle. Expressionismus 1890-1918. München u. Wien 2000. S. 15-27.

<Zusammenfassung>

Naturalismus und Darstellung der 'objektiven Wahrheit'.

Naturwissenschaftsrezeption im deutschen Naturalismus

Jin-Ho Hong (Sangmyung Uni)

Der deutsche Naturalismus stellt einen Zeitabschnitt dar, in dem sich die verschiedensten literarischen Tendenzen, von den gleichen geistigen und sozialen Bedingungen ausgehend, divergierend entwickelten. In dieser turbulenten Zeit wurde die Naturwissenschaft als eine der entscheidenden geistigen Grundlagen auf verschiedenen Ebenen und auf unterschiedliche Weise rezipiert. Die neuen Ergebnisse der naturwissenschaftlichen Forschungen und der überwältigende Erfolg der sich auf die Naturwissenschaft stützenden Industrie forderten zum einen ein wesentlich neues Welt- und Menschenbild. Zum anderen boten die objektive Naturwissenschaft und deren induktive Methodik den jungen Literaten, die sich gegen die Verschönerung und Idealisierung der Wirklichkeit in der massenhaft konsumierten Unterhaltungsliteratur stellten, die entscheidende Grundlage für eine neue Literatur, die die Wirklichkeit "objektiv" darstellen und nur die "Wahrheit" wiedergeben sollte. Darüber hinaus wurde versucht, nach dem Vorbild der Naturwissenschaft eine "induktive Ästhetik" zu begründen oder gar die Gesetze der Künste zu finden. Zu diesen unterschiedlichen Versuchen der Naturwissenschaftsrezeption im Naturalismus gehört aber auch das szientistische "Realismus"-Konzept, das folgendermaßen zusammenzufassen ist: Das Ziel des szientistisch orientierten Literaturkonzepts

ist die "realistische" Wiedergabe der Wirklichkeit, d.h. die Darstellung der "Wahrheit". "Wahrheit" bedeutet dabei aber nicht die sinnlich wahrnehmbare Wirklichkeit, sondern die dahinterstehenden allgemeinen Gesetze. Das, was wir als Wirklichkeit wahrnehmen, wird also nur als die äußere Erscheinungsform der eigentlichen Wahrheit verstanden, die nach den jeweiligen sekundären Bedingungen variieren kann. "Realistische" Wiedergabe der Wirklichkeit bedeutet demgemäß, die Wirklichkeit so darzustellen, daß sie den allgemeinen Gesetzen entspricht, also die Wirklichkeit als Verkörperung der allgemeinen Gesetze zu rekonstruieren. Dieses szientistische Konzept der "realistischen" Wiedergabe der Wirklichkeit wird von den Naturalisten in unterschiedlicher Weise umgesetzt. Die konkreten Umsetzungsformen hängen dabei im Besonderen davon ab, was unter den allgemeinen Gesetzen verstanden und was als die Verwirklichung der Gesetze dargestellt wird, wie z.B. Die Versuchung von Wilhelm von Polenz und Wer ist der Stärkere? von Conrad Alberti deutlich zeigen.

주제어: 자연주의, 자연과학, 다윈, 진화론, 자연과학의 수용,
통속문학, 가족잡지, 사실, 진실

Schlüsselbegriffe: Naturalismus, Naturwissenschaft, Darwin,
Evolutionstheorie, Naturwissenschaftsrezeption,
Trivalliteratur, Familienblätter, Wirklichkeit,
Wahrheit

필자 E-Mail: ojinho70@yahoo.co.kr

투고일: 2005. 10. 23, 심사일: 2005. 11. 21, 심사완료일: 2005. 11. 21.